‘자살에 이르는 病’… 가난·무관심

광주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잔혹死’

50일 새 4명 자살·고독사
1640세대 중 대부분이
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무관심과 빈곤 악순환 속
삶의 희망 잃고 극단 선택
관리사무소 설문조사
상당 수가 자살 위험군에

광주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 4명이 최근 50일새 잇따라 자살·병사(病死)했다.

급기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최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세대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광주시 북구 A영구임대아파트 209동에 사는 김모(48)씨는 지난 5월 13일 밤 9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불에 탄 연탄재가 남아 있었다. 208동에 살던 최모(63·지체장애)씨도 4월 3일 오전 8시40분께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5동 송모(53)씨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4동 김모(83)씨도 지난 3월 27일 14층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모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국가 유공자였다.

주변에서는 경제난·상대적 박탈감·무관심·무시 등 빈곤이 악순환 되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점차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이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이들 외에도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1640세대가 산다. 자칫 또 다른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자체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관리사무소가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 간 470세대(전체 세대의 28.7%)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29세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세대로 분류됐다.

이들 대다수는 또 설문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8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6명)·90대(4명)·70대(3명)·50대(3명)·40대(2명) 등 순이다.

이웃 간 갈등도 심해 범죄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간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5%가 ‘안 좋다’고 답했다.

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핸 유독 자살자가 많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세대를 분류한 뒤 주변 도움을 받아 수시로 세대를 방문하는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협임원 선거 아직도 돈봉투

“후보 3명에 380만원 받았다” 신고… 강진경찰 수사 나서

강진수협 임원선거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조합 간부들의 도덕성 추락과 함께 허술한 선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3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강진수협 대의원 A씨가 임원 선거 과정에서 경합 지역 후보로 나온 4명 중 3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다른 후보 1명으로부터 80만원 등 모두 38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26명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확보하는 한편, 금품 살포 및 수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위법 여부를 수사중이다.

수협은 돈 봉투 살포 논란 속에 지난 2일 선거를 실시, 이사 6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다. 돈 봉투를 돌린 의혹을 받은 후보 중 2명은 임원으로 당선됐고 한 명은 탈락, 한 명은 사퇴했다.

6개 이사·감사 선거구 중 3곳에서는 단일 후보가 출마했지만 나머지 3곳에는 각각 3명이 출마하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4명은 복수 후보 출마 선거구 후보였다. 임기 4년의 수협 이사는 무보수 직이지만 대출 등 수협 사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원참 〈8852〉 김종두

‘미운털’ 교수 재임용 거부에

“대학이 매월 임금지급” 판결

광주지법 민사 1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광주여대 전 교수 이모(59)씨가 이 대학 법인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해에 받지 못한 임금 6400여만원과 함께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95만원을 대학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는 2009년 말부터 교수 계약제도를 변경하려는 방침에 반발하고 학내 비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등 대학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학 측은 2011년 말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이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린 지금 당뇨 치료 중”

광주 북구 지역 당뇨 환자들을 위한 운동교실이 3일 오후 동강대학 체육관에서 사회체육과 노재성 교수의 지도아래 이뤄지고 있다. 환자들이 짐볼과 덤벨을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50m 질주…4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3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박모(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2순환도로 유덕IC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이모(40) 경사를 자신의 1t 포터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고 약 50m를 운전한 혐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상자 아닌 굴비에 붙인다

짝퉁 근절 대책 발표

영광굴비 명품화를 내걸었던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소속 회원이 수년간 중국산 굴비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광주일보 7월 3일 6면〉과 관련,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이 강도 높은 짝퉁 굴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소비자 불신을 씻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은 3일 오전 10시 영광군 법성면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사무실에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가짜굴비 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특품사업단은 목포해경에 적발된 영광 A굴비 수산 대표 문모(39)씨 등에 대해 ‘영광굴비 특품사업단로고’ 도용 등에 대해 상표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짝퉁 굴비 근절을 위해 청년회·번영회와 연계해 품질 관리원을 두고 16개 조로 나눠 굴비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일 감시·지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특품사업단은 특히 ‘진품인증태그’도 위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계절별, 시기별로 디자인을 바꾸고 QR코드에 사업체 동영상도 첨부하는 방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강해원 단장은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도 상자가 아닌, 굴비에 직접 붙이는 등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같은데…

완도경찰 ‘고무줄 잣대’

군청 공무원 긴급체포

해경 경사 불구속 수사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완도군청 6급 공무원〈광주일보 7월3일 6면〉을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완도경찰은 3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완도군청 소속 6급 공무원 조모(42)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사고를 낸 뒤 긴급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구속됐다.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완도군 금일읍 신평리 한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 상태로 자신이 운전하던 무쏘 차량으로 권모(61)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권씨가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14일 오후 8시40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최경주공원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6)씨와 양모(49)씨를 치어 김씨를 숨지게 한 당시 완도해경 소속 A(여·35) 경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 사고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이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비슷하지만 경찰에게는 불구속, 군청 공무원에게는 긴급체포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한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된다. 사고를 낸 피의자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사망 사고를 내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법 적용 기준이 다르게 비쳐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사망 사고의 경우 다음날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유사강간죄 첫 구속 영장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은 술에 취한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풀숲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술취한 이웃 바래다주다 지갑 슬쩍

쌍나팔

○…술에 취한 동네 주민을 부축해 집에 바래다주면서 현금이 든 지갑을 몰래 빼내간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6)씨는 지난달 6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내 쉼터에서 양모(59)씨의 현금 65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갔다는 것.

○…김씨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집에 바래다주던 중 양씨가 뒷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자랑하자 순간 욕심이 생겼는데, 경찰에서 “양씨가 술에 취해 모를 줄 알았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